

진도군수·투자유치자문관, 인공 씨감자 배양 한다더니...

## 성과없이 경영악화... 집중수사 나서

진도군수, 배양센터 설립 도와  
사업 지지부진... 센터 경매 넘어가  
경찰, 진도 (구)광석초 압수수색  
지역사회 등서 진상규명 목소리

경찰 등 사법당국이 이동진 진도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3월 중순 경찰이 진도군 임회면 (구)광석초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투자유치 전문가를 자처한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난 2012년부터 인공 씨감자 배양 사업을 지역 농업 분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진도군은 2016년 인공 씨감자 관련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폐교된 진도군 임회면 (구)광석초등학교에 인공 씨감자 배양센터를 설립하도록 해줬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수년 간의 배양 실험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2년 전 경영 악화로 배양센터가 경매에 넘어갔다.

앞서 압수수색을 당한 A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은 인공 씨감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실제 소유주였던 것이 분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수년 전 진도군의 서울 투자유치사무실을 문체의 인공 씨감자 회사가 사용해 당시 박영상 진도군의 회 군의원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했다.

이군수는 최측근인 A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과 함께 지난해 9월 민사 소송에 휘말렸고, 이군수는 대형 로펌에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유치자문관, 법원 증인 기피해 논란 확산

지난해 이군수와 최측근인 A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이 휘말린 3억원대 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전북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유치자문위원을 지낸 J모씨는 동료 사업가인 B모씨를 통해 이군수를 상대로 2020년 9월 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대여금 3억 2500여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법원측은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A씨가 재판 출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 재판에도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사건 관계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앞서 이군수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하는 금전 거래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재 A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은 인공 씨감자 배양센터 설립 과정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번 압수수색 사건과 별개로 사법당국에 또 고소를 당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처럼 이군수와 최측근이 연이어 민사,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안팎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도(전남)=박준영 기자 5555kj@metroseoul.co.kr



포항북부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정홍남)는 1일 오전 동부초등학교에서 서장과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단체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안전보행 원칙 등 안전보행 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교통 홍보 물품을 나눠줬다. /뉴스시스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임산물시설 지원

전북도, 주민지원사업 공모

전북도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일 도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해 신선했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들을 자발적인 백두대간 보호 주체로 유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도모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남원·무주·장수 관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오는 6월말까지 생산자단체를 대상

으로 모집한다.

다만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생산자단체 혹은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호두·대추 등 수실류와 표고버섯 등 버섯류, 더덕·도라지 등 산나물류, 약용류 등 7개 분야 79개 품목이다.

2022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한 내 시·군·시립부서에 신청하면 시·군 및 도·시의위원회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 플라스틱 회수 '친환경 원사' 제작 시동

태광산업·대한화섬 등 다자간 MOU  
친환경 원사 '에이스포라-에코' 생산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울산항만공사, 사회적기업 우시산, 유니폼 제작업체인 형지엘리트와 지난달 31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항만공사와 우시산에서 국내산 해양 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회수하면 태광산업·대한화섬은 이를 친환경 원사인 '에이스포라-에코'로 재생산하고 생산된 원사는 우시산과 형지엘리트에 전달돼 의류와 에코백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상품으로 개발해 제작판매하게 된다. 판매된 수익금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할 예정



우시산 변의현 대표(왼쪽부터),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 태광산업 박재용 대표, 형지엘리트 노길주 총괄본부장이 지난 5월 31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항 페트병 자원순환 사업 확대를 위한 해양환경보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강화해 건강한 지구를 위해 국내 친환경 재활용 섬유시장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섬유사업본부 박재용 대표

이사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책임 경영에 앞장 서고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광주노동청, 건설현장 안전모 착용 점검

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근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전모 의무 착용 등 작업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노동당국이 강조하고 나섰다.

1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전남 함평군 모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천장재 시공 작업 중 이던 A(59)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4월 15일에는 신안군 흑산도의 전신주에서 통신 설비 작업 중이던 B

(41)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앞서 3월 20일에는 광주 광산구 모 군부대 내에서 건설근로자 C(69)씨가 도배 작업 중 높이 60cm 발판 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올 한해 1~5월 사이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30건 중 14건은 작업 중 추락 사고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노동청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발판·안전 난간 설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가 우선이라고 밝

혔다. 특히 대부분의 추락 사망 사고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큰 화를 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청은 안전모 착용 인식 확산을 위해 이달 중 안전모 지급·착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추락 위험 작업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최초 5만 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 경북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경북대 상주캠퍼스, 국비 95억 확보

경북도가 경북대 상주캠퍼스와 협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가 주관하는 '2021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지역특화분야 공모에 예비 선정돼 국비 95억원을 확보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이학, 공학, 기초의과학, 융합, 지역특화 등 기초연구 개발을 지원하고자 200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설된 지역특화분야에서 영남대가 선정된 바 있다.

경북대 상주캠퍼스는 국비 95억원에 지방비 18억원(도 9억, 상주시 9억원)을 더해 총 113억원의 사업비를 7년 동안 지원받아 산학협력 기반 차세대 에너지 소재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탄소중립 지능형 에너지시스템 선도연구센터'는 도, 상주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역기업과 협력해 도내의 철강, 화학 산업 및 농축산 산업의 폐에너지를 활용, 신에너지를 창출하는 미래사회 탄소중립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 영양군,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결과 따라 무료 전화상담 등 서비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민 누구나 간편하게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영양군보건소 1층 민원인대기실에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운영한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경향성, 알코올중독 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검진 즉시 결과지를 통해 구체적인 정신건강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검진결과는 영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며 검진결과에 따라 무료로 전화상담 및 전문심리상담사와 자문의사를 통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